

29차시. 동기설계과정과 수업설계과정

1. 동기설계과정과 수업설계과정의 조화

● 수업설계와 동기설계

- 수업설계, 안정적 수업에는 도움을 주지만, 동기유발에 대한 접근방법 미흡
Dick & Carey 의 ISD모형은 대표적인 수업 설계 과정으로서, 수업설계를 할 때 교사들이 기본적으로 거쳐야 할 단계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ISD 모형은 교사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다.
Dick & Carey 모형 그 자체는 수업 전체를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학생들의 동기유발에 대한 접근방법이 미흡하게 다루어져 있다는 점이 바로 그 한계이다. 이는 ARCS 동기설계 과정을 활용할 때 극복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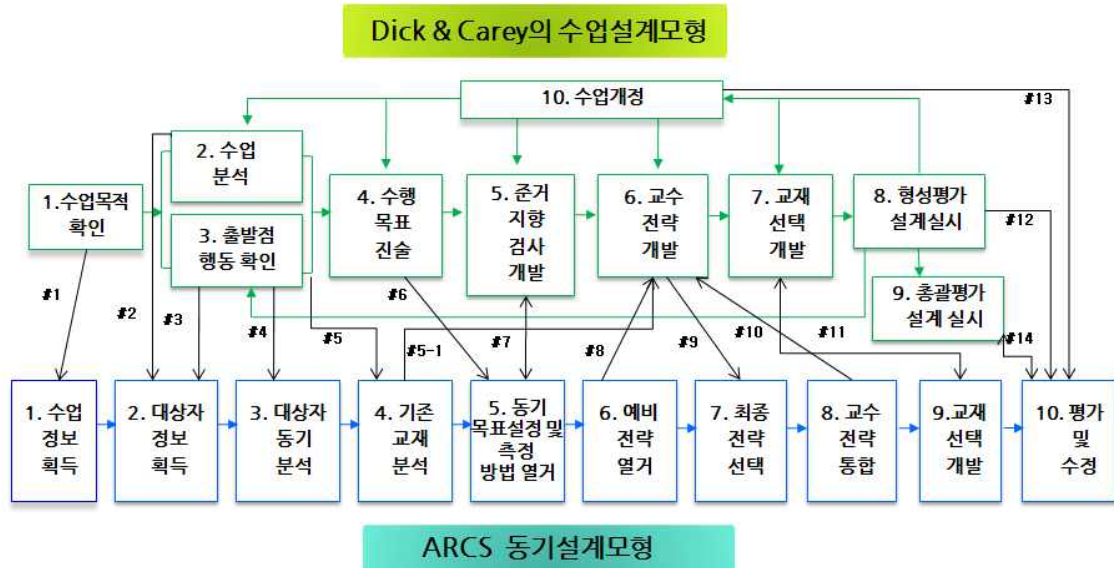
● ARCS 동기설계과정 활용 방안

ARCS 동기설계과정을 활용하는 방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존수업을 위한 수업지도안을 매력적인 수업으로 재개발하고자 할 때 활용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존의 수업지도안이 없을 때 수업을 처음 개발하기 시작하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단계 ARCS동기설계모형의 지침을 가능한 모두 숙지하고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준비와 함께 ARCS 동기설계과정을 활용한다면, 수업설계를 위한 절차에 동기설계의 절차가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2. 수업설계과정과 동기설계과정의 접점

수업지도안 작성을 위해 Dick & Carey의 수업설계모형을 선택하고 그에 따라 수업설계를 시작 할 때 ARCS 10단계 동기설계모형의 절차와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는 양 모형의 어느 부분들에서 접점(interface)이 발생하는지를 파악해야 알 수 있다.

Dick & Carey 모델과 ARCS 모델의 인터페이스



● 인터페이스 1

● 전미분석이 동기설계에 왜 유용한가?

수업설계에서 중시되는 전미분석(front-end analysis)이 동기설계에 왜 유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전미분석의 과정 자체는 동기설계를 위해서도 가치로운 자원이다. 수업목적은 필요점 분석, 학생관찰, 교육과정 고찰 등의 활동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이러한 전미분석 과정이 동기설계에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 수업에 대한 배경정보를 얻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전미분석에서 얻는 다른 이점은 교사나 수업설계자로 하여금 문헌, 수업자료, 학생, 교사, 종업원, 고용주, 교과전문가, 행정가, 자문위원, 관련 사업자 등 다양한 정보자원들을 접하게 한다는 것이다. 비록 설계자가 직접 전미분석을 실시하지 않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마련해 놓은 전미분석 결과만으로도 설계자들은 잠재적 동기문제 해결을 위한 안목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전미분석 결과가 없을 경우 최선의 추측(best-guess)을 통해서라도 수업의 배경정보를 파악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즉, 코스정보획득을 위해 필요하다면 교사나 설계자들이 수업설계과정에서 생략된 전미분석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이다. ‘맥락’이나 ‘교수자 정보’ 항목들이 바로 동기설계과정을 통해 수업설계과정을 돌아보게 하는 것들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수업의 효과성, 효율성을 위한 수업설계과정에 의해 보완되지 않는 동기설계는 매력성을 달성하기도 힘들 것이다.

● 수업목적 진술의 이점

수업목적은 명쾌하게 진술함으로써 두 가지 이득이 있다.

첫째, 수업목적 진술 과정 그 자체가 동기설계자들에게 잠재적 동기문제를 드러내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업목적이 너무 기술적인 것이라면, 동기설계자는 어떤 목적이 동기전략을 좀 더 활용하여 가르쳐져야 할지에 대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동기설계자는 주어진 목적에 대한 학습자의 동기적 태도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전 정보들은 동기설계과정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동기설계자들이 자신들의 편견에 의해 좌우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도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다. 사전 정보들은 그것들이 제3단계인 ‘대상자 동기분석’의 결과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족한 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인터페이스 2

● 수업분석이 동기설계에 주는 이점

Dick & Carey 모델의 2단계인 ‘수업분석’단계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은 교수목적 및 하위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분석표**이다.

수업분석이 동기설계를 위해 이로온 두 가지 점이 있다.

첫째, 수업분석에 참여하여 주요 실행 단계를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설계자들은 수업목적에 마치 자신들이 학습자들인 것처럼 수행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수업목적이 학습자들에게 주어졌을 때 학습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잠재적 어려움을 규명하는 기회가 된다.

둘째, 하위기능을 분석하는 과정도 중요한데 이것은 그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수업내용을 제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수업설계자들은 때때로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포함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Dick & Carey가 지적하듯이, 단지 ‘알아서 좋은 것(nice to know)’에 해당하는 지식과 기능은 정말로 필요한 것과 구분되어야 한다.

불필요한 것들은 위의 예에서와 같이 학생들을 지루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Visser와 Keller(1990)는 수업설계의 한 가지 목적은 꼭 배워도 되지 않을 것을 제거하여 즉, 학습자들로 하여금 무관한 과제에 강제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동기가 저하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동기설계자들은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학습자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인터페이스 3

• 출발점 행동 확인이 중요한 이유

Dick & Carey 모델의 3단계인 ‘출발점 행동 확인’으로부터는 두 가지 결과물이 얻어진다. 하나는 수업실시 이전에 **학습자가 지니고 있어야 할 초기 행동이나 기능**이다. 또 하나는 **학생의 특성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다. 출발점 행동의 확인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동기설계자에게 학습자의 동기문제, 특히 자신감에 관한 아이디어를 주기 때문이다. 사전 지식이 없는 학생들이 그들의 기존 쉼마를 넘는 새로운 내용을 학습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Dick과 Carey는 학습자의 사전지식을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학습내용과 연결시키도록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 인터페이스 4

• 지금까지 얻은 모든 정보들을 ARCS별로 유목화

ARCS모델을 Dick & Carey 모델과 병행하여 사용하는 이점 중의 하나는 ARCS모델이 **전체 수업설계과정**을 통해 설계자들로 하여금 학습동기 문제에 대해 **주의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의 측면에서 예민하도록 만든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지금까지 얻어진 모든 정보들을 **동기설계자가 실제 위의 4가지 필요요건들로 유목화하는 시점**이 동기설계의 3단계인 ‘**대상자 분석**’이다. 동기설계자들은 학습자의 동기적 프로파일을 가능한 한 완벽하게 예측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저자들이 지적하고 싶은 한 가지는 동기 프로파일을 결정할 때 학습자의 대표적 샘플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Dick & Carey 모델의 출발점 행동 확인 단계에서 수업설계자들은 이미

• 학습자 동기특성에 초점

수업의 효과성을 위해 파악되어야 하는 출발점 부족에 대해 정보를 획득했다. 그러므로 **ARCS 모델의 대상자 분석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동기 특성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야 한다. 저자들은 **학습자의 동기프로파일이 언제나 그들의 출발점 행동 소유 여부와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비록 선수 지식과 기능이 부족하더라도 동기유발이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을 볼 수 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물론, 이 양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 모든 경우에 적절한 동기전략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확인된 출발점 행동을 참고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인터페이스 5

• 동기설계의 4단계, 기존교재분석을 위한 정보 활용

동기설계의 제 4단계인, 기존 교재분석을 위해서는 이전 단계의 모든 정보들이 활용된다. 예를 들어, Dick & Carey 모델의 3단계인 ‘출발점 행동 확인’에서 얻어진 결과를 통해서는 기존 교재가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는 **선수학습부족을 잘 보충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존교재 분석을 위해서는 Dick & Carey 모델의 2단계인 ‘수업분석’의 결과도 유용하다. 이것은 기존교재의 내용이 정말로 수업분석을 통해 밝혀진 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토픽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는 **관련성**에 대한 조사이기도 하다.

• ‘수업분석’과 ‘출발점행동 확인’의 결과가 가용하지 않을 때

기존 교재가 출발점 행동에 대한 처방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 위 그림의 인터페이스 5-1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Dick & Carey 모델의 6단계인 ‘교수전략 개발’단계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6단계가 바로 수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위한 교수전략을 찾아내어 선택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업분석’과 ‘출발점행동 확인’의 결과가 가용하지 않을 때는 ARCS 모델의 3단계인 ‘대상자 동기분석’으로부터 얻어진 정보만이 기존교재분석을 위해 가용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수업설계자나 교사는 그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수업분석’과 ‘출발점행동 확인’을 실시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에 대해 심각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 ‘수업분석’과 ‘출발점행동 확인’단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만약, 이 두 단계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수업설계자들은 ARCS모델의 6, 7단계에서 동기전략 선택을 위해 그들에게 요구될지도 모르는 부담과 혼란에 대해 나름대로 준비해야 한다.

이는 그들이 동기문제와 교수전략의 문제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담과 혼란이다. 효과성 및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교수전략의 문제에는 적절하지 않게 진술된 교수목적 및 목표, 부적절한 대상 학습자의 선택, 잘못 파악된 출발점 행동 등이 있는데, 이는 곧 수업의 내용구성이나 수업활동에 포함되는 것들이다.

우리는 비록 짧더라도 ‘수업분석’과 ‘출발점행동 확인’단계는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싶다.

● 인터페이스 6 & 7

• ‘동기목표설정 및 측정방법 열거’ 실시 순서

우리는 ARCS모델의 5단계인 ‘동기목표설정 및 측정방법 열거’가 Dick & Carey 모델의 4단계인 ‘수행목표진술’ 바로 다음에 실시되거나 5단계인 ‘준거지향검사개발’ 다음이나 동시에 실시되도록 권고한다.

이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우리는, 비록 그것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는 있으나, **수행목표의 달성 없이 동기목표만을 달성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는다.** 학교나 기업훈련 상황에서 수행목표가 언제나 분명한 것은 아니며 또한 내용도 반드시 유용한 것은 아닐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동기목표가 수업목표보다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수업 실시자가 학습내용을 전달해주는 것보다 수업을 좀 더 재미있게 만들어 학습동기를 높여주려고 애쓰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저자들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비록 반드시 그렇지는 않더라도 수업내용을 배우고 마스터하는 그 자체가 학습동기의 주요 원천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이유는 **동기 상태 확인을 위한 문항의 수가 수행목표 검사 문항의 수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터페이스 7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수행목표를 위해 준거지향검사를 기술하는 것과 동기목표 측정방법을 열거하는 것이 서로를 배려하며 실시되어야 한다. 만약, 수업의 목적이 뭔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면 수업의 효과성 측정에 보다 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지적되어야 할 점은 효과성과 매력성을 같이 측정하려고 검사문항을 계획할 때, 학습자들은 별안간 제시되는 시험문항이나 지루하게 제시되는 동기조사 문항에 의해 쉽게 정신 산만해 진다는 점이다.

- 인터페이스 8, 9, 10

- ‘예비전략열거’, ‘최종전략 선택’

ARCS 모델에서 예비전략이 나열된 후에, 주어진 수업목표, 내용, 매체, 수업 활동, 그리고 검사문항에 적절한 교수전략을 선택한다. 인터페이스 8의 화살표가 ARCS 모델에서 Dick & Carey 모델로 향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교수전략들이 선택된 후에 동기전략들이 최종 선택된다. 인터페이스 9는 그 방향을 표시하고 있다. 물론, 동기전략의 최종 선택은 특정한 수업상황에 맞는 준거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 ‘교수전략통합’

동기전략선택과 관련하여 마지막 단계는 선택된 동기전략을 교수전략과 통합하는 것이다(인터페이스 10). 지금까지 동기전략들은 선택되어 A, R, C, 그리고 S 라는 범주별로만 부분적으로 통합되어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는 그것들을 수업내용, 수업실시 방법, 그리고 수업활동에 대한 교수전략과 통합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동기전략과 수업전략이 상당 부분 중복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복습기회의 제공은 자신감 향상을 위한 동기전략인 동시에 교수전략이기도 하다. 수업설계자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특정 전략이 지니는 효과를 세심히 살펴야 한다.

기존 교재의 동기적 특성을 향상시키자 할 때는 이미 동기설계자들이 ‘기존교재분석’ 단계에서 기존교재에서 사용되고 있는 동기전략을 확인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특히 이미 파악된 전략들에 의해 동기전략 선택의 과정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적절한 방법 중의 하나는 기존교재 분석에 참여하지 않았던 동기설계자 몇 사람을 브레인스토밍에 참가시키는 것이다.